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3호 【루게 제23065호】 주체99(2010)년 4월 23일 (금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4.25에 즈음하여 개건된 개선청년공원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4.25에 즈음하여 인민의 유원지로 새롭게 개건된 개선청년공원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과 위무성 제1부상 강석주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인민봉사총국 총국장 고병섭동지, 대성산지도국 국장 홍철수동지와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공원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장이 개건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데 대한 보고를 드리였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쾌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개선청년공원이 새롭게 개건되었다.

풍치수려한 모란봉을 배경으로 김일성경기장, 개선문을 비롯한 웅장화려한 기념비적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특색있게 개건된 개선청년공원은 배그네, 3중회전반, 급강하람, 판성비행단차, 전자오락실 등 각종 최신식유희오락시설들과 청량음료점, 지킴집, 빵집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을 갖춘 종합적인 문화휴식장소이다.

청수정, 은사각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정각들과 분수, 폭포들로 하여 자기의 독특한 미를 자랑하는 개선청년공원이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어머니당의 한없는 사랑과 은덕을 더욱 가슴뜨겁게 받아안게 되었다.

어머니장군님의 애국애민의 숭고한 뜻을 심장 깊이 간직한 군인건설자들과 모란봉구역건설자들은 총성의 들격전을 벌려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유원지개건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개선청년공원안내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유희오락시설들과 봉사시설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개선청년공원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발휘하여 공원을 인민의 훌륭한 유원지로 전변시킨 군인건설자들과 모란봉구역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요구라면 천만 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개선청년공원이 몇개월사이 개건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인 우리 군인들의 정신력과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상급의 유희오락시설들을 리용하여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충분한 문화휴식을 보장해줄수 있게 된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개선청년공원지구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한평생 인민들과 어린이들속에 계시며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 근로자들의 웃음꽃 넘쳐나는 이 훌륭한 유원지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온 나라에 거세차게 타오르는 대고조의 불길속에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품고있던 리상과 포부가 하나하나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격동적인 사변은 이 땅우에 거연히 일떠서게 될 주체의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바야흐로 눈앞에 펼쳐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유서깊은 모란봉기슭에 자리잡고있는 개선청년공원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하시면서 공원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개선청년공원의 편리운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유희오락시설들에 대한 설비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4.25에 즈음하여 개건된 개선청년공원을 돌아보시였다



### 1 면 에 서 계 속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고 그 운영을 부단히 개선강화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개선청년공원에

불장식까지 해놓으니 좋다고 하시면서 공원의 지형조건과 설비들의 특성에 맞는 불장식을 더 잘하여 밤에도 공원의 아름다운 면모가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적인 개선청년공원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공원이라고 하시면서 만경대유회장, 대성산유원지를 비롯한 모든 공원, 유원지들을 개선청년공원처럼 잘 꾸려 인민들

에게 더 좋은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원, 유원지들에 대한 관리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유원지의 돌 하나, 나무 한그루도 원상 그대로 보존하며 특히 산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평양시에서는 원림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잘하여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공원을 이루게 함으로써 수도 평양이 《공원속의 도시》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빛내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는 인민의 리익을 첫차리에 놓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꾼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전체 평양시민들과 군인건설자들은 한평생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4.25에 즈음하여 개건된 개선청년공원을 돌아보시였다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46호 주체99 (2010)년 4월 23일 평양

###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오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건군절 78돐을 맞으며 일찌기 위대한 선군사상과 령도로 주체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정에 넘쳐있으며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일 불라는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창건된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준엄한 반제혁명전쟁에서 무비의 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혁명의 핵심부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오늘 인민군대는 당의 령도밑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차넘치는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특히 제963군부대는 지난 시기 냉원발전소와 미립감문건설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웠으며 오늘은 강성대국건설의 전초선인 희천발전소건설에서도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은 대상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으며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나는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난 제963군부대 지휘성원들이 앞으로도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주체혁명업무를 충대로 굳건히 지키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혁명의 주력군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뜻깊은 건군절에 즈음하여 군사칭호를 다음과 같이 올릴것을 명령한다.

- △ 대장 윤정린
- △ 상장 김성덕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몽골 대외관계상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전달을 방문하고있는 몽골 대외관계상이 선물을 품보차린 잔단사파르데의 올렸다. 관계상이 22일 최고인민회의 본사기자

### 태양은 영원하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데 대하여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태양이 영원하듯이 김일성주석께서는 《태양의 집》으로 불리우는 금수산기념궁전에 생전의 모습 그대로 영생하고계신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주시대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고 하면서 불레전은 세계적판도

###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강군

태양절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돐,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방송, 통신이 기념보도를 하였다. 10일 캄보자의 《에프엠90.5》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신 위대한 군사전략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다. 그이께서는 조선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시였으며 전후에도 치렬한 반미대결전에서 편승하시였다.

참으로 김일성주석은 조선을 해방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에서 탁월한 군사사상과 독창적인 전략전술, 다방면적인 경험을 창조하시고 세계사에 특기할 군사적업적을 이룩하신 전설적영웅이다.

9일이 나라의 어깨메통신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도전이 국도에 이르렀던 1990년대 중엽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국부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시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을 통해 우리 군대가 적들의 그 어떤 도전도 단애에 짓부셔버릴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튼튼히 준비된대 대하여 찬양하였다.

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면시키시고 군사중시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도록 하시였으며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소개하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령도밑에 조선은 불패의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길이 떨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8일이 나라의 압짜라 TV 및 라디오방송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된대 대하여 보도하였다.

같은 날 우루과이 《세. 에. 키스36라지오 셀메나리오》 방송, 적도기네라지오방송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당, 군대, 국가사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는데 대하여 특히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본사기자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4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께서는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남수우 총명치는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군들이 대표단을 만나 동포애의 정참가하였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께서 몽골 대외관계상을 만났다

【평양 4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께서는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몽골 대외관계상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담화를 하였다.



【평양 4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께서는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몽골 대외관계상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는 짜하이긴 엘베그도르취대통령의 친서를 전하여드린것을 대외관계상이 김영남동지에게 부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짜하이긴 엘베그도르취대통령에게 보내시는 구두친서를 김영남동지가 대외관계상에게 전달하였다.

대외관계상은 외교관계설립후 지난 60여년간 몽골과 조선사이의 관계는 좋게 발전하여왔다고 말하였다.

그는 앞으로도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더욱 확대발전되리

라고는 확신한다고 하면서 조선 강조하였다. 쏘도브잠핀 후렐바르르 주조 몽골 특인민에게 변영이 있기를 바란다고 여기에는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명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 비상한 애국의 열정이 낳은 고귀한 열매

## 생물분원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투쟁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 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생물분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재배원가가 매우 낮으며 생산성이 비할바없이 높은 큰단백질을 리용하여 발효 먹이를 생산하는 방법과 기술을 연구완성하여 여러 단위들에 도입함으로써 나라에 큰 보탬을 주고있다.

서 잘 자라는 이 열대식물은 압수한그루며살이식물로서 번식속도가 대단히 빨랐던것이다. 때문에 과학자들은 큰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였다. 하지만 양어먹이로 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있었다.

처음 큰단백질을 그냥 먹어보니 물고기들이 먹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알카로이드라는 성분이 이런 맛을 냈던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미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연구를 심화시켰었다. 낮에 밤을 이은 고심어린 탐구와 헌신적인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복합미생물의 도움으로 큰단백질이 어떤 맛이 제겨되고 물고기의 먹성을 높였으며 메기먹이의 30%를 큰단백질로 대체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다.

성공을 차지한 분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교수, 박사인 원장 손경남, 소장 한정일 동무들 비롯한 일군들은 큰단백질의 리용범위를 더 넓혀 성과를 부단히 확대해나가기 위해 과학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양어와 달리 축산에서는 대량적으로 생산된 큰단백질을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었다. 실천활동을 통하여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큰단백질이 다른 먹이작물들보다 단백질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큰단백질은 한정보에서 최고 원어이냐 생산할 수 있는데 몇몇 기를 번식시켜 다른 먹이작물을 땅에서 재배할 때 비하여 경제모양 5-6배에 달하는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다. 결국 별로 들이지 않고 집짐승에게 이용할 수 있는 첨가제를 얻게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당의 품속에서 키워온 창조적힘과 지혜와 재능을 가장 높히 펼쳐야 할 때입니다.》

당이 바라는 문제, 현실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를 충실하게 풀어내주고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려 이룩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이룩한 성과는 주목할만 한것이다.

몰을 적극 리용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가 차게 하게 하는것은 당의 정책적 요구이다.

실현생활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큰단백질을 리용하여 나라의 양어와 축산업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한것은 참으로 자랑찬 한 성과이다.

몇년전 어느 한 단위에 나갔던 과학자들은 오수정화용도 쓰이는 큰단백질에 흥미를 가지고 양어먹이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였다. 그도 그렇것이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에서 온도가 20~30°C되는 물에

효과를 높여주는 미생물이 선발되었다. 시험에 달라붙은 그는 알곡부산물에서 증식된 미생물이 먹이로 들어선 집성물집이 큰단백질함량을 만드는 데 아주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여 배합먹이에 큰단백질함량을 지어 50%까지 높여 성형해보았다.

보람은 컸다. 물속에서 알먹이가 풀리지 않았고 물고기가 먹는 데도 편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배양물에 의해 장인의 해로운 균이 억제되어 물고기의 사멸률은 2.5배까지 줄어갔으며 메기의 증체률도 더 늘어났다.

이러한 연구성과에 토대하여 여러 단위의 양어장들에 도입한 결과 큰단백질발효먹이의 경제효과성이 높아 사람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큰단백질발효먹이를 받아들이던 어민단위에서는 한해에 수백t의 배합먹이를 절약하면서도 물고기 생산을 늘여갔다 한다.

엔제인 박봉화동무는 선군시대 과학자라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풀고 물고기 사육을 도와주는 사명을 안고 있다. 그것은 철색송어 어린 고기와 새끼고기먹이를 미생물로 처리하여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단백질이 들어 있는 사료를 생산 시키기도 훨씬 높이고 생산량을 대폭 줄인것이다. 또한 그는 배합먹이의 어분함량을 10% 이상 낮출 수 있는 첨가제를 이미 개발하여 큰단백질발효먹이로 철색송어의 증체률을 높여 물고기 생산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큰단백질로 메기의 비육 단계에서 배합먹이 50%를 대신!

방법을 내놓기 위해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였다. 결건물이 적지 않았다. 여성 과학자가 하는 일의 중요성과 의미를 원만히 해결하고 집중은 몰을 먹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내었다.

공훈과학자이며 박사, 부교수인 주호성동무는 경제강국건설에 한몫 단단히 할 비상한 애국의 열정과 연구사업에 박력있게 버려 많은 량의 풀이나 남새를 미생물로 처리함으로써 소금을 전혀 쓰지 않고 생산하게 집짐승에게 주었다. 미생물의 도움으로 20일 동안 절입한 큰단백질은 겨울철은 물론 햇볕이 나올 때까지 먹일 수 있는데 큰단백질을 미생물로 처리하면 여러가지 생리활성물질이 생성되므로 먹이 소와 흡수율이 높아지고 물집대사기능도 강화되어 성장발육이 촉진된다.

분원의 일군들과 연구자들은 식물의 일군들과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큰단백질 발효먹이생산으로부터 집짐승을 돌보아주는데까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나라의 양어와 축산업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물분원의 일군들과 연구자들이 현 대화된 일군들과 창조적 협조를 형성하는 사업에 적극 도와 주고있다는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셨다.

받아안은 믿음과 사랑이 클수록 분원의 일군들과 연구자들은 찬란한 명예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박관에 넘쳐 대고소사가 요구하는 과학연구성과를 더 많이 이룩하기 위해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 평양 산원에서

아기가 엄마를 떠나 살수 없듯이 어머니라 부르는 당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 녀성들의 복판은 삶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열매진 분사편집곡으로는 여러장의 편지가 왔다. 평양산원 의료일군들에 대한 소행사료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 위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국제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지난해 가을, 동대원구역 삼마1유치원 교양원 박승금동무는 생애를 낳았다. 그러나 그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그 풋발의 대출혈로 혼수상태에 들어갔다.

바로 이러한 때 가족들 못지 않게 안락과하여 환자 자신의 소생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평양산원의 의료진이었다.

원장 김경희동무를 비롯한 한 일군들이 일방에서 서서 치료전투를 지휘하였다. 여러차례의 기술협회의와 3차례 걸치는 대수술 그리고 많은 고약량들과 피가 환자의 몸에서 흘러들어가 박승금동무는 15일만에 의식을 회복하였다. 하지만 그는 워낙 병이 심했는지라 다시 쇼크상태에 들어갔다. 그러기를 몇만...

이런데서부터 박봉화, 주호성, 구현석, 임충성, 김영진, 천해영, 김순희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에는 당의 현명한 영도밑에 곳곳에 일떠선 현대화된 돼지장들에서 큰단백질발효먹이기술을 도입할데 대한 새로운 과제가 맡겨졌다.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대고의 열풍을 일으키고자 하는 새 기풍의 개척자라는 사명을 감내하고 현실에 내려간 연구자들은 돼지먹이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연구집단의 초점은 배합먹이에 쓰이는 첨가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는것이였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라에 큰 리익을 줄 수 있었다.

큰단백질에 대한 과학이 쇠고한 박봉화동무는 종전에 쓰던 값비싼 첨가제를 쓰지 않는 방법을 내놓기 위해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였다. 결건물이 적지 않았다. 여성 과학자가 하는 일의 중요성과 의미를 원만히 해결하고 집중은 몰을 먹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내었다.

공훈과학자이며 박사, 부교수인 주호성동무는 경제강국건설에 한몫 단단히 할 비상한 애국의 열정과 연구사업에 박력있게 버려 많은 량의 풀이나 남새를 미생물로 처리함으로써 소금을 전혀 쓰지 않고 생산하게 집짐승에게 주었다. 미생물의 도움으로 20일 동안 절입한 큰단백질은 겨울철은 물론 햇볕이 나올 때까지 먹일 수 있는데 큰단백질을 미생물로 처리하면 여러가지 생리활성물질이 생성되므로 먹이 소와 흡수율이 높아지고 물집대사기능도 강화되어 성장발육이 촉진된다.

분원의 일군들과 연구자들은 식물의 일군들과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큰단백질 발효먹이생산으로부터 집짐승을 돌보아주는데까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나라의 양어와 축산업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물분원의 일군들과 연구자들이 현 대화된 일군들과 창조적 협조를 형성하는 사업에 적극 도와 주고있다는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셨다.

받아안은 믿음과 사랑이 클수록 분원의 일군들과 연구자들은 찬란한 명예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박관에 넘쳐 대고소사가 요구하는 과학연구성과를 더 많이 이룩하기 위해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 북정리의 여성들의 열정

이들 의지대로 김일원 동무는 그토록 바쁘던 끝을 이루었다.

지난 3월 6일, 만사람의 축복속에 그가 아들을 낳았지만...

그날 평양산원의 의료일군들만이 아니라 이들도 모르는 산모들도 무척 찾아와 축하해주며 그때는 위대한 장군님 품에서 누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을 눈물겹게 체험하였다.

정녕 평양산원은 생의 고고성을 떠치는 아기들의 요람단이었으니 아니라 나라 녀성들의 따뜻한 품에서 두의 따뜻한 분사까지 방경찬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꾸바혁명무력군사대표단, 외국순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2일 꾸바혁명무력군사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여기에는 알바로 로베스 미에라 꾸바혁명무력부 부상장, 꾸바혁명무력 부총장 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원들, 레오나르도 베레스 메사 주조꾸바공화국대사관 무판이 참가하였다.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동행하였다.

《김일성정군의 노래》 선물이 올라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표상에 꾸바혁명무력군사대표단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현생활을 바치시여 조선과 꾸바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인민의 자주위업 수행에 분열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인사를 드리였다.

단장은 방문록에 조선인민과 인류를 위하여 불면불주의 로고 글씨를 바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할것이라는 글을 남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2일 모함마드 알리 파를라히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대표단, 짜미르 이스마일 디마스즈중합대학 권략연구소 소장을 단장으로 하

는 수리아 디마스즈중합대학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순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순님들은 이민위한 리념을 구현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여 불멸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갈고 견제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다함없는 흥모의 마음담아 고이의 동상에 꽃바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 제17차 전국 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 폐막

제 17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이 폐막되었다. 경사스러운 2일의 명절적 경축과 대양을 바닷길에 기념 하는 대이 바치 한 이번 축전은 경에 하는 김일성정군의 충성사상주의 혁명위업의 계속자로 믿음직하게 지라나는 새 세대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와 풍모를 잘 보여 주었다.

제막식이 2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있었다.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되신 17륵에 즈음하여 머르메자 머르메자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 2인 대사관에서의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서는 모함마드 알리 파를라히 부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락과 김정일원수각하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경비호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되신 17륵을 맞이한 조선정부와 인민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고자 하였다.

두 나라 평등과 동반에 의하여 마련된 이란이슬람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확대발전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가 서로 지지하고있는데 협조하여 언급하고 조선정부와의 협조가 앞으로 경제분야에서도 궁정적으로 진행될것을 바라라고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최태복부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이란의 빛들이 해마다 우리 인민의 뜻같은 4월의 명절들을 함께 기념하고 경축한 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높은 흥모의 표시로 된다고 말했다.

경에 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명도에 의하여 우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 동포 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22일 재일동포 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축원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현생활을 바치신 경에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대한 다함없는 흥모의 마음담아 고이의 동상에 꽃바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파 병사들은 위대한 선군명장의 품속에서 조선노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며 영생하는 삶을 받아안는다.

영하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당의 선군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장관 65륵을 조국정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군사로 빛내이기 위한 충진군에서 주진공물처럼 살며 투쟁하도록 고무추진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이러한 특명전권대사

회 마련

확대발전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가 서로 지지하고있는데 협조하여 언급하고 조선정부와의 협조가 앞으로 경제분야에서도 궁정적으로 진행될것을 바라라고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최태복부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이란의 빛들이 해마다 우리 인민의 뜻같은 4월의 명절들을 함께 기념하고 경축한 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높은 흥모의 표시로 된다고 말했다.

경에 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명도에 의하여 우

## 재일 본 조선인 대표단

김일성종합대학과 여러곳 참관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조선인 대표단 22일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하였다.

대표단 성원들은 김일성종합대학의 크고 아름다운 모습과 최우익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 전자도서관이 훌륭히 일떠서 대한 해설을 들으며 시 열렬호를 뜨고 컴퓨터교육실, 원격강의실, 학술교류실 등을 갖춘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이어 그들은 대학내에 현대적으로 꾸러진 수영장을 참관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남승우 부의장은 감동속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시는데 대하여 감동을 금할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대표단은 이밖에도 조선혁명박물관, 국제친선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평양방직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한편 대외관계상의 일행은 만경대 방문하였으며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재일 조선인 예술단

사 리원에서 공연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 참가한 재일조선인 예술단이 22일 황해북도 예성군에서 공연하였다.

최봉래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상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시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재일조선인예술단은 올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가고있는 황해도의 통째로 메세지강변전선 건설자들, 사리원시 미류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한 황해북도인민들을 위해 성의껏 준비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공연무대에 올렸다.

실화와 혼성중창 《수령님 우리가 왔습니다》, 남성독창 《우리 수령님》, 남성독창과 여성 6중창 《대주 모시리》, 여성 3중창 《결에 계시면》, 민속가악 2중주 《강성부흥의 아침》, 여성독창 《모란봉》, 장세남독주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 등 종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견고히 하는 김일성동지님을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선군명도과 주체의 사회주의적의 용을 만방에 펼쳐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잘 보여주었다.

아버지수령님의 유산인 총련을 굳건히 고수하고 경에하는 장군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애국의 대를 뜻이 이어갈 제일동무들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여성 2중창 《애국준마 타고 달리아》, 혼성중창 《총련부흥의 아침》을 비롯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공연은 당장관 65륵을 승리의 대추진으로 빛내기 위하여 새로운 비전의 폭풍을 일으키기 위한 전진군을 다그치고있는 도내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 몽골 대외관계상 귀국

몽골 대표관계를 담당하는 몽골 대외관계상과 일행이 22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박경원 외무부상과 쓰드브잔절 후렐바바르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관 대외관계상과 일행을 전송하였다.

제류기간 대외관계상과 일행은 라선시의 여러곳을 돌아보

##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

조직대표단, 대표들이 떠나갔다

카피지우 옥마브 아르리카 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로혜맹 감독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대표단, 겐나지 아스마호브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철학학회 편지사로 주체사상 연구조대표단, 아나톨리 돌가체브를 단장으로 하는

##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피리굴 연광농장에서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농장에서 명절과 휴식일을 비롯한 여러 계절에 다양한 체육경기를 자주 조직하여 농어근로자모두가 사업에 한사람같이 열쳐나서도록 하였다.

작업반별, 분조별로 벌어지는 풍구와 배구를 비롯한 여러 체육경기를 통하여 그들은 제력을 튼튼히 단련하고있으며 고상한 집단주의정신도 발휘하고있다.

기세차게 진행되는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농업근로자들은 생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로동동원 리 철 판

## 조선과 이란정부사이의 2010-2012년 문화 및 과학교류계획서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부사이의 2010-2012년 문화 및 과학교류계획서가 22일 평양에서 조인되었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정영진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판계부분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모함마드 알리 파를라히 부상이 기획서에 수표하였다.

##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정풍화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총련일군대표단이 떠나갔다

사리원시 조국방문하였던 일군들이 22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